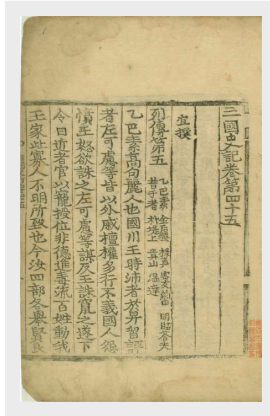


을파소[乙巴素] 나라를 안정시킨 명재상

미상 ~ 203년(산상왕 7)



삼국사기 을파소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을파소(乙巴素)는 고구려 9대 고국천왕(故國川王, 재위 179~197)과 10대 산상왕(山上王, 재위 197~227) 시대에 걸쳐 고구려의 국상(國相)을 지낸 인물이다. 고구려 왕권의 지지 아래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공을 세웠다.

2 고국천왕 시대 고구려의 정치 상황

고국천왕은 고구려 9대 왕으로서 179년 즉위하였다. [관련사료](#) 고국천왕은 고구려가 이후 역사에서 발전을 구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던 왕이라 평가받는다. 곧 고국천왕 시대는 안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중국 세력의 압박을 극복하며, 3세기부터 시작되는 고구려의 비상을 준비하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고국천왕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내홍을 겪기도 하였다. 일례로 고국천왕 6년(184)에 고구려는 중국 후한(後漢) 요동태수(遼東太守) 군대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 전투에서 고국천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을 물리쳤다고 전한다. [관련사료](#) 이처럼 당시까지 고구려 서방으로는 중국 세력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까지 고구려는 왕을 배출하였던 계루부(桂婁部) 왕실과 함께 4부(部)가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를 이른바 고구려 5부(五部)라고 하는데, 당시 고구려의 정치 운영은 이 5부의 역학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구려의 왕권 강화 과정은 곧 계루부 왕실과 4부의 갈등의 역사이기도 했다. 특히 고국천왕 12년(190)에는 이러한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어 반란 사건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

당시 고구려 정계의 실력자였던 중외대부(中畏大夫) 패자(沛者) 어비류(於昇留)와 평자(評者) 좌가려(左可慮) 등은 모두 왕후의 친척으로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자제들은 집안의 권세를 믿고 무례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타인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가옥과 땅을 빼앗는 등의 악행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원망하며 크게 분통해 하였고, 결국 일이 고국천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고국천왕은 이들의 악행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죽이려 하였는데, 그러자 좌가려 등이 고구려 5부 중 하나였던 연나부(楸那部)와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다. [관련사료](#) 곧 반란군이 왕도를 공격하자 고국천왕은 기내(畿內)의 병력을 동원하여